

### 3월1일 주일설교

축복된 본문 : 마태복음 5장5절

축복된 제목 : 하늘복 시리즈-3,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개역개정)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축복된 서론** - 아름다운교회 창립 35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일입니다. 아름다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1, 하늘복 세 번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왜 땅이 축복일까요?

팔복의 세 번째 하늘복은 무엇입니까? -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은 천국을 복으로 받은 자가 애통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뿐만 아니라 위로를 넘어 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이 말씀은 단순하게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의 단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백성이 되어 누리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대장되신 전능의 왕 하나님의 위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드디어 세 번째 복은 그 전쟁터에서 싸운 군사가 누리는 축복인데 땅을 나누어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참여한 영적 군인에게 전리품으로 도시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실망하셨습니까? “땅100만평씩 주면 더 좋을 것을?”...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도시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 눅 19:15-17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고을을 다스리는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대통령·장관·국회의원 이 모든 세상에서의 영광들은 다스림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스림의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을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역병 ‘코로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나요?

“마스크 써! 교회 가지마!, 극장가지마!, 학교 가지마!...”

지금 원치 않는 코로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지배자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권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것이 다스림이고 땅을 받는다는 말은 고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성도님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악한 다스림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선한 다스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다스리는 권세를 땅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 2,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3의 하늘복을 온유한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온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위스’입니다. 헬라어 ‘프라위스’의 뜻을 보면 우리말과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라위스’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은 ‘길들인다’ 입니다.

쉬운 예로 적토마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온유는 적토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 전쟁터를 종횡무진 하는 모습을 연상하세요. 야생마를 산에서 포획해서 그 말을 길들였더니 주인에게 길들여진 그 말이 주인이 원하는 길로 질풍처럼 달려가서 전쟁터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적토마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온유의 뜻을 정리하면 - “어떤 힘이 잘 조율 되어 그것이 인격에 덕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가 잘 다스려져서 하나의 통합된 인격의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온유는 어떤 온유일까요? “성령의 통제력 안에 나를 두는 행위” 라고 보면 맞습니다.

성도님의 ‘프라워스’ 지수를 점검하십시오. ‘온유지수’를 파악해보세요. 성령님의 통제에 순종하는 온유의 크기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나는 나의 힘을 주를 위해 모으는가, 흩어버리는가. 나는 나의 힘을 모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 **빌립보서 3장12-14**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끄는가? 나의 코로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크리스천은 내 욕망대로, 꿈틀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날뛰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조절이 되어야하고 욕망제어가 되어야합니다. 주님의 재갈이 내입에 물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 힘 그 힘 온유가 생기면 행복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보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가 묻게 됩니다. 오래전 윌로크릭커뮤니티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는 크리스천은 “예수 바이러스다”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거룩한 회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온유한 모세를 보십시오. 온유한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온유한 요셉이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 보십시오. 온유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기를 초청하십니다.

### **3, 그러면 어떻게 행복의 조건인 온유함에 나아갈까요?**

첫째로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영적인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온유한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합니다.

둘째로 반드시 말씀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미움과 분노와 교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반드시 말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우리를 온유로부터 분리합니다. 분노조절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정적으로 매이지 말아야합니다.

**성령·말씀·말의 덕.** 이 세 가지를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온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맺겠습니다.

### **역대상 7:13~14**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 **시편 91:6-7(새번역)**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염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왼쪽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